

# 실적 우려에 외국인 자금 이탈



[Strategist] 노동길 연구위원

☎ (02) 3772-4455 ✉ dk.noh@shinhan.com

## 실적 우려 부상에 시총 상위 대형주가 지수 하락 견인

KOSPI와 KOSDAQ은 각각 0.8%, 1.0% 하락했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 시장도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CPI 대기 속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기대감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현선물 대규모 매도로 대형주 위주 하락 마감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은 다시 4%대를 상회하였고 연말 시장을 주도 했던 실적 기대감이 꺾이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반도체 업종과 에코프로 그룹주 포함 2차전지주 등 시총 상위 대형주가 KOSPI와 KOSDAQ의 낙폭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 주식시장 지표

구분	KOSPI	KOSDAQ
증가	2,541.98 (-0.75%)	875.46 (-1.04%)
상승 종목	337 (12)	522 (15)
하락 종목	540 (10)	1030 (10)
주체별	KOSPI	KOSDAQ
개인	3,516	2,964
외국인	-2,172	-2,317
기관	-1,410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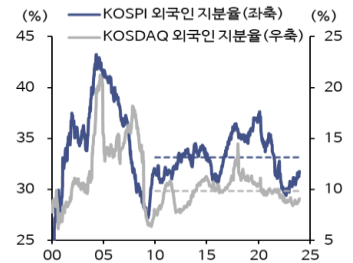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 건설, 자동차 업종 상승 vs IT가전, 반도체 업종 하락

KOSPI는 장중 전일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엔솔 실적의 예상 하회에 외국인, 기관의 매물 출회가 지속되었고, IT가전과, 반도체 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건설과 자동차 업종은 최근 주가 부진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에 상승하였습니다.

#특징업종 1) **2차전지**: LG엔솔 실적 컨센 하회에 외국인과 기관의 2차전지주 매물 출회에 약세. 2) **토스관련주**: 토스 IPO 입찰제한서 마감한 가운데 기업가치 최대 20조원으로 평가 받으면서 관련주 강세. 3)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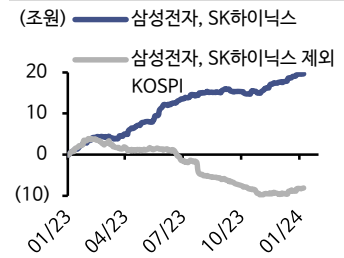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1월 외국인 순매수 확대 업종: 자본재(방산), 소프트웨어(인터넷, 게임)

외국인은 2023년 KOSPI, KOSDAQ을 각각 11.3조원, 1.3조원 순매수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이유는 제조업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업황 바닥 통과 베팅 때문이었습니다.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 대금은 19.6조원으로 두 종목을 제외하면 KOSPI는 외국인 순매도 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예상치 하회 영향에 외국인 수급이 2일 연속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거래일 연속 순매도 한 것은 작년 12월 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반면 실적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방산, 인터넷, 게임주는 순매수가 지속됐습니다. NAVER는 7거래일 연속, 한국항공우주는 8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23년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노동길).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